

사설(社說) 오늘은 도다 조세이 선생님의 탄생일

2022년 2월 11일

‘홀로 서는 정신’의 계승을



도다 조세이 선생님 ©세이교신문사

빙설(氷雪)도 녹는 열기로 절복(折伏) · 흥교(弘敎)의 드라마가 잇따르는 70주년 전통의 2월.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께서 어성탄(御聖誕)하시고, 제 2대 회장 도다 조세이(戸田城聖) 선생님이 태어난 이 달, 선생님이 탄생한 땅, 이시카와(石川)에서도 서원(誓願)의 동지(同志)가 약동(躍動)하고 있다. 지금까지 13세대(世帶)의 절복을 성취해 온 가가시(加賀市)의 남자부 리더는, 올해도 확대의 돌파구(突破口)를 열기 위해 모바일STB를 활용. 1월의 본부간부회를 22명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명과 창제(唱題)를 계속하는 등 불연(佛緣)을

크게 펼치고 있다.

또 리더 솔선의 싸움으로 촉발되어 「세이교신문(聖敎新聞)」 구독을 추진한 벗, 용기의 대화로 우인이 입회를 결심하게 된 남자부 대학생 등 저마다 자신의 새로운 2월 투쟁의 역사를 쓰고 있다.

오늘 2월 11일은 도다(戸田) 선생님의 탄생일이다. 선생님은 전시(戰時) 군부정부(軍部政府)의 탄압(彈壓)으로 괴멸(壞滅)된 학회(學會)를 재건하기 위해 패전(敗戰) 후 초토(焦土)에 홀로 섰다. 자작(自作)한 ‘동지(同志)의 노래’에는 “묘법유포(妙法流布)의 대원(大願)을 드높이 받쳐 들고 혼자 나선다.”라는 노랫말과 동시에 ‘깃발 든 젊은이’에게 “타투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라는 호소도 들어 있다.

홀로 서는 사자(師子)에 호응(呼應)하여 공전(共戰)의 사자가 선다. 선생님은 이 대학신으로 질병과 빈곤에 허덕이는 서민 속으로 뛰어들어 인간혁명(人間革命)의 철리(哲理)를 가르치고, 살아가는 용기를 주었으며, 여성의 행복을 바라며, 청년의 분기(奮起)를 기대(期待)했다. 이 은사(恩師)와 불이(不二)의 제자(弟子)인 이케다(池田) 선생님의

대투쟁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창가(創價)의 민중성(民衆城)이 구축되었음에 깊이 감사하며, ‘광포(廣布)의 서원(誓願)’에 끝까지 살아가는 사제(師弟)의 혼(魂)을 계승(繼承)해 나아가고 싶다.

3월의 청년부간부회를 목표로 하여, 청년부의 벗이 소설 『신 · 인간혁명(新 · 人間革命)』의 연찬에 힘쓰고 있다. 제8권 ‘보검(寶劍)’ 장(章)에는, 야마모토 신이치(山本伸一)가 도다 선생님으로부터 계승한 ‘홀로 서는 정신’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광선유포(廣宣流布)를 추진(推進)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결의해 주기 바란다.” “청년이라면 홀로 서는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은 바뀌어 간다.”라고. 중요한 것은 광포(廣布)를 위해 스승과 함께 싸우려고 홀로 서는 것이다.

스승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 항상 그 사색(思索)을 거듭해 광포(廣布)에 매진(邁進)하는 속에, ‘홀로서는 정신’의 계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가는 것이 스승과 같은 시대에 살며, 훈도(薰陶)를 받아온 우리의 사명(使命)과 책임(責任)이다.

지금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시대(新時代)의 야마모토 신이치’라는 자각에 서서, 지역에 모범(模範)이 되는 광포성(廣布城)을 구축해 가고 싶다.